



DATA BREACH

[기술데이터 유출] 기술유출이 산업 구조를 흔드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기술유출이 산업 전체를 흔드는 시대, 경영진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기술데이터 유출은 더 이상 내부 보안 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AI 활용 확산과 글로벌 투자인보 규제 강화로 기술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거래 구조, 투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응이 미흡할 경우 기술 손실을 넘어 공급망 배제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인력 관리 전반을 아울러야 할 때입니다.

AI가데이터·기술유출의 지름길? 방지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이자, 가장 빠른 데이터·기술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핵심 기술과 기밀 정보가 기업 통제 밖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실정에, AI보안이 미흡한 기업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투자·거래·규제 리스크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 속에서 관리해야 할 경영자산으로서의 AI에 대해 짚어봅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징역 2.5년 선고 및 950억 범죄수익 추정 명령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임원, 징역 1.5년 확정

”훌륭한 기술로 제품 안 만들어도 실험시간 단축했으면 처벌될 수 있어” 산업기술 보호 범위 확장한 대법원의 판결

PROPOSED BILL

최신 개정·발의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벌금 상한 4배 상향한 법안 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스파이도 간첩으로 간주...간첩법 개정안 통과 ‘눈 앞’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로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의

GLOBAL & LOCAL TRENDS

국내외 주요 동향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 ‘과징금 50억’...정부, 공급망 거래 전반 규제 구조 전환

기술 유출 위협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직면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

INSIGHTS

인론 속 대론

국제신문 등 2곳



‘새로운 기회의 장’...대론,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론과 사한중연합회가 2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베트남 법률 이슈 및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머니S 등 9곳



대론,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론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세일보 등 3곳



법무법인 대론, ‘가맹사업 피해구제’ 전담 TF 출범

법무법인 대론은 가맹사업 분쟁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 피해구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차액가맹금·정산 구조 등 반복 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CONTACT

조영근 T. 070-7510-2014
경영총괄변호사

윤형운 T. 070-7510-1118
경영총괄변호사

신중수 T. 070-7510-1046
최고총괄변호사

김은영 T. 070-5117-2950
최고총괄변호사

손계준 T. 070-5117-3709
총괄변호사

이서형 T. 070-7510-2016
수석변호사